

『태양신의 황소』에서 제국의 위대한 전통 허물기*

민 태 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제14장 『태양신의 황소』("Oxen of the Sun") 에피소드는 퓨어포이 부인(Mrs. Purefoy)의 출산이 임박해 있는 국립 산부인과 병원(National Maternity Hospital)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다. 스티븐(Stephen)과 블룸(Bloom)을 포함해서 의대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태아단계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태아의 발달과정과 고대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영국 산문 문체의 발달과정이 평행관계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태아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탄생까지 아홉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가 정확하게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연구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문학의 유기적 발전과 태아 성장의 유사성을 다룬 연구서로는 재너스코(Robert Janusko)의 『제임스 조이스의 『태양신의 황소』의 출처와 구조』(*Sources and Structures of James Joyce's "Oxen,"* 1959)를 들 수 있다. 또한 고대부터 빅토리아 시대까지의 다양한 작가의 문체를 다루다 보니 난해할 수밖에 없는 이 에피소드를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를 통해 해독하려는 시도도 또 다른 연구의 방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774).

향이였다. 예를 들면,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대한 연구, 또한 취중 대화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연구 등이 있었다. 예를 들면, 벤스톡(Bernard Benstock)의 『태양신의 황소 모른 채 해독하기』(“Decoding in the Dark in ‘Oxen of the Sun,’” 1991)가 이러한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산문 문체의 발달사 관련 논의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이스는 대표적인 작가들의 글을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많은 비평가들은 조이스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산문들을 연속적으로 병치하여 제시함으로써 영국문학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조이스의 앤솔로지(anthology)를 원문에 대한 패러디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졌고 이제 이는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태양신의 황소』와 영국 작가들의 글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헤링(Philip Herring)은 “조이스가 영문학의 저명작가들을 연대기 순서대로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링이 바로 이어서 조이스가 “명백한 풍자적 악의(혹은 적의?)가 없이”(without any apparent satirical malevolence) 패러디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는 것이다(30). 이는 헤링 외에도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해 왔던 것으로 패러디는 부인할 수 없지만 패러디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Bazargan 273). 그렇다면 왜 조이스가 일부러 영국문학 앤솔로지[선집]의 편집자가 되려고 했을까?!) 우리가 알기로 조이스는 “문학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 영국적인 전통/관습에 대한 저항”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O'Connor 107). 필자가 보기에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에 시작된 조이스에 대한 역사적·정치적인 측면의 분석에 의해 제공된다. 조이스의 앤솔로지를 영국문학사 혹은 영국 산문사와 관련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스푸(Robert Spoo)는 『율리시스』 제2장(“Nestor”)의 역사론과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주는 역사적 관점을 비교 및 대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김슨(Andrew Gibson)은 『조이스의 복수』(*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2005)에서 이 장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패러디

1) 참고로, 이인기는 이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조이스가 다양한 문체를 원용한 의도는 그가 역사쓰기의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의를 펴고 있다(141-42).

의 의도가 부재하다는 비평가들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앤솔로지의 정치학이 이 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는 그 당시 앤솔로지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논의하면서 조이스가 이 에피소드에서 제시한 앤솔로지는 영국인의 주류 앤솔로지에 저항하는 “반 앤솔로지”(anti-anthology, 173)로 간주한다. 필자도 조이스의 패러디의 의도가 영국의 위대한 문학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에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묘하게 조이스가 그러한 전통을 허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문필가이었던 카알라일(Thomas Carlyle)과 머콜리(Thomas Babington Macaulay)의 원문과 이를 모방한 조이스의 글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이스의 교묘한 도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식민주의자에 대한 식민지인의 모방과 관련해서는 호미 바바(Homi Bhabha)의 모방 이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에서 조이스는 영국의 위대한 산문작가들의 문체와 어휘 등을 대략 역사적인 순서대로 모방 혹은 패러디한다. 조이스 학자들은 그 동안 조이스가 주로 두 권의 앤솔로지, 즉 피콕(William Peacock)이 편집한 『영국 산문: 맨더빌부터 러스킨까지』(*English Prose: from Mandeville to Ruskin*, 1903)와 세인트즈베리(George Saintsbury)가 편집한 『영국산문 리듬의 역사』(*A History of English Prose Rhythm*, 1912)를 참고해서 자신의 앤솔로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Janusko 93). 이 둘을 포함해서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의 앤솔로지는 자주 영국의 장점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찬양하며 애국심을 함양하였다(Spoo 139). 퀴트릴(Esther Quantrill)은 이 시기에 민족적 정체성이 얼마나 문학적 전통과 점점 더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는지를 지적한다(215). 또한 앤솔로지는 당시 세계 곳곳의 식민지에 흩어져 있는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인들까지를 하나로 통합할 목적으로 씌어졌다. 왜냐하면 앤솔로지는 “외견상 단일한 전통을 제시해 주었고 다양한 배경과 믿음을 가진 독자들을 겨냥했기 때문이다”(Gibson 174). 1880년부터 1920년 사이의 영국 문화민족주의는 19세기 전반에 두드러졌던 정치적·종교적 분열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문 앤솔로지는 이 데올로기의 전달에 좀 더 효과적이었고 조이스가 사용한 앤솔로지에는 영국 문화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형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Gibson 175).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앤솔로지도 외견상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

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문체를 자랑하듯이 전시함으로써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문학은 위대한 제국의 표현이었다. 조이스가 특히 많이 참조했던 피콕의 앤솔로지는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싣고 있다. 김슨은 이러한 산문들이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왕정주의적이고, 계급주의에 기반을 둔, 반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한다(175-76).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본 것을 때 이러한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말로리(Sir Thomas Malory)의 “Of King Rience”에서 영국의 아더 왕은 11명의 왕을 굴복시켰다면서 겁을 주는 아일랜드 왕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가 굴복하지 않으면 처형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대영제국의 왕은 여러 왕들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임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Peacock 8-9). 또한 버크(Edmund Burke)는 “Nature of England’s Hold of her Colonies”에서 영국인 조상들이 “미개한 황무지를 영광스러운 제국으로 변화시켰다”고 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있다(Peacock 236). 나아가서, 영국인들이 “파괴대신 인류의 부, 숫자, 행복을 증진함으로써 유일한 명예로운 정복”(236)을 했다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조이스가 군국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등에 대해 보인 비판적 태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조이스가 이러한 정신을 고취시키는 듯이 보이는 앤솔로지의 산문들을 모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날 태어난 퓨어포이 아이는 아일랜드 태생이므로 아일랜드인이 분명하지만 감리교 신자 집안의 영국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신생아가 위대한 영국문화를 내재화한 명실상부한 영국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란다. 비록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만은 고대부터 카알라일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온 찬란한 영국 산문의 전통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조이스가 영국의 문필가들의 문체로 영국계 아이의 출생을 서술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제국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가 국립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산부인과 병원은 주로 영국계의 기부금으로 세워졌고 이사장은 항상 영국총독이었기에 영국의 아일랜드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Harris 376). 결국 출생을 포함한 식민지인의 “통제와 억압의 역사”를 나타내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영국계라는 것은

아이러니이다(Harris 376). 하지만 이 병원이 가난한 분만환자들을 위한 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Harris 375), 퓨어포이 부모는 전형적인 영국계 아일랜드인과 달리 권력과 돈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평범한 아일랜드인들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영국 산문 전통에 대한 조이스의 모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그 전통의 내재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영국계이면서도 영국에 저항했던 톤(Wolf Tone), 에멧(Robert Emmet),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등 민족주의 인사들처럼 영국의 간섭에 대항할 수 있는 식민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이 보인다. 아이는 영국 고유의 전통과 그 언어가 아니라 그것을 패러디하는 언어를 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탄생한 식민지의 아이는 비록 지연적으로는 아일랜드인이지만 영국이 원하는 대로 바로 영국문화 안으로 편입된다. 이는 식민지인의 영국인으로서의 “귀화”(nationaliz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Gaipa 202). 가이파가 이러한 위대한 전통 속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두고 “영국문화의 상속자”라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다분히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2). 아이의 성 “Purefoy”는 어원적으로 “순수한 믿음”(fure faith)이란 뜻인데 그가 영국의 문화에 대해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이스는 패러디 혹은 불완전한 모방을 통해 영국의 위대한 문화의 순종성(purity)을 훼손하고 있고 그러한 언어로 이 아이의 탄생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아일랜드인인 그의 문화는 혼종성(hybridity)을 특징으로 할 것이고 이는 저항의 요소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이스가 프랭크 버전(Frank Budgen)에게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여 보낸 편지에 나오는 한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위대하고 풍요로운 영국의 문화적 전통을 설명한 후에 “How’s that for high?”(*Letters I* 139)라고 묻는다. 김슨의 주장대로 여기서 조이스는 “high”를 부분적으로는 “high class”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고 아이로니컬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66). 피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높은 수준 아닌가?”의 의미이겠지만, 이러한 문화적 풍요는 고위층, 지배계층에 속한 것이고 퓨어포이를 포함한 가난한 평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듯하다.

공교롭게도 앤솔로지는 주변인이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고급문화를 받아

들이기 위한 통로였다. 크로포드(Robert Crawford)는 영문학의 제도적 연구는 애초에 식민지인들과 같은 문화적 국외자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한다(38). 앤솔로지는 식민지인들이 문화적인 동질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을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인 대접을 받아도 영국에서는 아일랜드인 취급을 받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영국문화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절실했을 것이다. 영국계 아일랜드인은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식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식민지인이고(Wells-Lassagne 451), 또한 “아일랜드의 타자”(Irish other)로서 “영국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Wells-Lassagne 452). 제국 편에서도 앤솔로지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앤솔로지로 대변되는 영국의 문화를 내재화한 사람은 영국의 가치관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앤솔로지는 대영제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앤솔로지는 순종적인 식민지인을 형성하고 대영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의 단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에서 유아의 탄생이 앤솔로지의 언어로 서술된다는 것은 그가 주변부의 저항을 막으려는 제국의 전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가 현재 주변인으로서 얼마나 주류에 편입하기를 원하는지는 아이의 이름에서 암시된다. 그의 이름은 “총독부의 정수관이자 퓨어포이씨의 영향력 있는 팔촌의 이름을 따서 모티머 에드워드로 지어질 것”이었다(U 14.1334-36).²⁾ 부모들은 주류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친척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 친척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류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 그것은 보어전쟁의 영웅 이름을 따서 지은 또 다른 아이인 밥시(Bobse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U 14.1331-32). 로버츠 경(Sir Frederick Sleigh Roberts)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뛰어난 무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보어전쟁 당시 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식민지인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 간주하였고 제국을 방어하고 확장시키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제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Gifford 438). 이처럼 아이의 이름에서라도 영국계의 신분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쓴다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위치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신생아를 “사회적 신분 이동의 도구”로

2) 앞으로 조이스의 *Ulysses*는 U로 약(略)하되 장(章)수와 줄 수를 표시함.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Osteen 236). 어쨌든 퓨어포이 아이는 이름만/무늬만 영국계 아일랜드인일뿐 실체는 가난한 식민지인일 뿐이다.

대부분의 식민지인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이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영국인들은 그들의 우월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국인인 것과 영국인화 되는 것 사이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being English and being Anglicized)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Bhabha 89-90).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방으로서 “영국인화 하는 것은 명백하게 영국인인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Bhabha 87, 이탤릭체는 원문의 강조). 호미 바바는 식민지인의 모방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식민지 인도의 예를 든다. 머콜리 경(Lord Macaulay)이 1835년 언급한 이래로 식민지의 영국 행정가들은 인도인들이 영국의 언어, 태도, 예의, 관습 등을 모방하기를 기대하였다. 바바에 의하면, 이러한 제국의 지식은 원주민과 영국인 사이에 있는 교육받은 식민지인, 즉 통역자(interpreter)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역자는 “혈통과 피부색”은 원주민이지만 “취향, 의견, 도덕, 지성에 있어서는 영국인”인 혼종적인 계층이었다. 바바는 머콜리 경의 방법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식민지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86). 그렇지 않으면 식민주의자의 우월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식민지인들은 식민주의자의 요구, 즉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타자가 되어야 하는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식민지인은 모방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방의 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분열을 시킬 수 있는 “혼종”(hybrid)이 된다. 또한 식민지인은 식민주의자의 문화에 대한 나르시즘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자로서의 인식에서 오는 저항감,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이 역설적으로 병존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은 식민주의자의 문화를 불완전하게 모방함으로써 암암리에 식민주의 담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완전히 같지는 않은” 식민지인의 정체성은 제국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제국의 문화를 모방한다는 것은 “조롱과 위협”을 내포하기 때문이다(Ashcroft 125).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결과 나타나는 식민지인의 글쓰기이다. 흉내내기 혹은 모방의 위협은 가면 뒤에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인 시각”(double vision)으로부터 오는데, 이 시각이 제국의 권위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방에 내재된

“위협은 공공연한 저항에서 온다기 보다는 식민주의자와 완전히 같지 않은 정체성을 끊임없이 암시하는 방법으로 온다”(Ashcroft 126).

“통역자”의 집단에 속하는 이 “흉내내는 사람”(mimic man)은 분열된 식민지인으로 자아와 타자, 순종과 저항, 모방과 창조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에서 조이스는 영국의 문학을 능란하게 흉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국인과 “거의 동일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것은 영국문학과 그것이 지지하는 제국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사실상 조이스는 이 에피소드에서 영국인과 그 문화에 대해서 “되받아쓰기”(write back)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Gibson 171). 이 날 새로 태어난 영국계 아일랜드인 신생아는 조이스가 모방하여 보여주는 “완전히 같지는 않은” 영국문화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조이스의 “불완전한” 모방의 잠재적 도전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 먼저 영국 제국주의시대의 대표적인 문필가 카알라일의 문체를 모방한 부분(U 14.1391-1439)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조이스는 피콕이 편집한 앤솔로지에서 카알라일의 많은 단어들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앤솔로지에서 카알라일은 제국의 현자 혹은 예언자에 어울리는 권위 있는 어조로 노동의 신성함을 설교한다. 하지만 『태양신의 황소』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제국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어조와는 거리가 있다. 비록 조이스가 카알라일의 단어를 많이 가져왔지만 동일한 단어들도 동일한 어조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단어들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두 텍스트 모두에서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toil on)는 것은 단어와 내용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카알라일은 “헤라클레스처럼 일하라”(work at it, like a Hercules!, 335)고 하는데 조이스는 “꼭 쇠사슬에 매인 개처럼 일하라”(labour like a very bandog, U 14.1414-15)고 함으로써 신화 속의 영웅 대신 개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물론 카알라일도 가족부양은 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333), 다른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고상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동일하지는 않다. 카알라일의 경우 좀 더 추상적이고 고귀하며 이상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반해 조이스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내린다.

노동은 생명이다. 노동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신이 주신 힘이 솟아오른다. 그 힘은 전능하신 신이 그에게 불어넣어주신 성스러운 천상의 생명-정수(精髓)이다. 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는 모든 고귀함에 눈을 뜨게 된다. 모든 지식, 자아인식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에 눈을 뜨게 된다. . . 지식? 노동할 때 효력을 갖게 될 지식, 그것에 매달리라. (Peacock 336)

여기서 카알라일은 노동자가 노동할 때 받게 되는 신적인 능력을 “성스러운 천상의 생명-정수”(the sacred celestial Life-essence)라고 하고 있다. 노동이 타락한 인간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카알라일은 “노동에는 영원한 고귀함 심지어는 성스러움이 있다”고 말한다(Peacock 189). 이에 반해 조이스는 “비이슬의 습기”(raindew moisture)를 “천상의 생명 정수”(life essence celestial, *U* 14.1407)라고 함으로써 성스러운 것을 자연현상으로 전락시킨다. 마찬가지로, 카알라일은 지식에 매달리라고 한 반면, 조이스는 퓨어포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매달리라(Cleave to her!, *U* 14.1414)고 함으로써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인간으로 대체한다. 성스러운 지식과 달리 아내는 “빨간색의, 설익은, 피가 흐르는 소고기 스테이크”(U 14.1424)로 보신해야 하는 연약한 산모이다. 그녀는 또한 “온갖 질병의 북마전”(pandemonium of ills, *U* 14.1425)같은 부실한 몸을 하고 있다.

여기서 조이스가 “아내를 섬기라”(Serve!, *U* 14.1414)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이스는 카알라일의 사상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알라일은 남녀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자는 가정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여자는 순종하도록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이다(Hall 175). 바로 앞에 나온 “그녀에게 매달리라”는 것도 여성의 주변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뒤에 “나이든 가부장이여 그녀에게 (매달리라)”(To her, old patriarch!, *U* 14.1438-39)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하게 가부장제에 대한 화자의 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카알라일이 주로 남성적인 노동(labor)을 찬양하는데 비해 조이스는 다산, 나아가서는 퓨어포이 부인의 산고(labor)를 찬양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카알라일은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더러워진 손과 얼굴, 그리고 그 소유자인 남성 노동자를 찬양한다(333). 조이스의 경우에 물론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퓨어포이의 “용감한 행

둥”(U 14.1410)을 칭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그로인해 온갖 육체적인 병을 영광의 상처인양 안고 있는 여성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³⁾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출산에 성공한 아내를 두고 “용감한 여자가 씩씩하게 협조했다”(U 14.1312)고 하는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여자에게 “씩씩하게”(manfully)라는 단어를 적용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남성의 전통적/제국주의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알라일은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자”이었고, 영국민을 “선택된 백성”으로 간주하였다(Schapiro 106). 또한 영국이 우월한 인종과 민족으로서 열등한 인종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Schapiro 106-7). 아일랜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카알라일에게 이웃 식민지인들은 “타락하고 혼란스러우며 . . . 질서가 없고, 무분별하고, 폭력적이고, 부정직한”(Schapiro 106 재인용) 민족이었다. 그는 개인과 인종간의 불평등을 믿었기 때문에 유색인종을 열등하게 보고 영웅을 신과 같은 존재로 찬양하였으며(Schapiro 101), 평민을 경멸하였다. 카알라일만큼 평민을 멸시하고 상류층을 찬미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할 지경이었다(Schapiro 102).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이스는 카알라일을 패러디하면서 그가 멸시한 평민이며 그가 통치대상으로 간주한 식민지인 퓨어포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가 참고로 한 앤솔리지에서 카알라일은 콜럼버스를 “나의 영웅”으로 찬양하고 있는데(338), 원주민/식민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제국주의자이며 정복자에 불과하다. 카알라일은 “위대한 인간” 콜럼버스가 “정복자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기드온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Peacock 337-38). 이스라엘의 지도자 기드온은 밤에 내리는 이슬을 표징으로 삼되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신이 그 기도를 들어 주었다. 그것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신의 징표였다. 조이스는 기드온/콜럼버스라는 영웅의 자리에 소시민/식민지인 퓨어포이를 대체시킨다.

집에서는 푸주한의 청구서에, 직장인 은행에서는 (그대의 것이 아닌) 주형(鑄

3) 조이스는 17회의 임신과 과도한 출산 때문에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어머니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출산에 대한 그의 잠재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Lowe-Evans 26, *Letters II* 48).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다산을 축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잠재의식적으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형)에 눌러, 그대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고개를 들라!
그대는 각각의 새 아이에 대해서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보라, 그대의
양털이 이슬에 젖었다. (U 14.1416-19)

기드온의 양털과 마찬가지로 퓨어포이의 양털이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그가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각각의 새 아이가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 영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의 이론에 반대되는 것이다. 맬서스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기근·빈곤·약덕이 발생한다. 맬서스는 식량 공급이 인구 성장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를 가난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임금을 최저생계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tein 206). 퓨어포이의 경제적 현실은 맬서스의 이러한 예언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딸린 식구가 많은 그는 “푸주한의 청구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이스가 맬서스의 이론에 맞서 퓨어포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맬서스주의자들은 뉘쳐야 한다”(U 14.1415)고 외치기까지 하는데, 이것 또한 카알라일에 맞서는 목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맬서스의 시각을 카알라일은 “어두운”(dismal)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그 진단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Stein 206).

조이스가 맬서스의 이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영국에 맞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국인들 쪽에서 보았을 때 아일랜드인들(the Irish Catholic)은 매우 일찍 결혼해서 신속하게 아이를 많이 낳는 관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보았고 그것이 “아일랜드 문제”였다(Gibson 152-53).⁴⁾ 빈곤의 탓을 제국의 경제적 착취 대신 인구의 과잉에 돌리는 것이다. “문명인” 영국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일랜드인들은 산악제한에 있어서 절제가 결여된 “야만인”이었다. 또한 영국계 개신교 인구 대비 아일랜드 카톨릭 인구의 증가는 영국에 위협이 되었다(Gibson 154). 따라서 맬서스의 이론은 결국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4) 톰슨(William J Thompson) 의하면, 1852년 감자 기근 이후 시행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아일랜드 인구는 약 20 퍼센트 감소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나타내었지만 출생률은 영국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였다(481, 483).

할 수 있다. 반면에 조이스는 감자 기근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인구감소에 대해 좌절감을 나타내었다. 그는 『법정의 아일랜드』(“Ireland at the Bar”)에서 영국의 지배이후 아일랜드 인구가 8백만에서 4백만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 불평했고 (Joyce, *Occasional* 146), 유사한 심정을 『자치 성년이 되다』(“Home Rule Comes of Age”)에서도 토로하고 있다(Joyce, *Occasional* 144). 이러한 조이스의 입장은 『키클롭스』장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시민(the Citizen)의 통렬한 비난을 통해 강조된다. 그는 “4백만 대신에 오늘날 여기에 있어야 할 사라진 2천만 아일랜드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라진 종족”이라며 울분을 토한다(U 12.1240-41). 『태양 신의 황소』도 아일랜드의 다산을 장려하는 단락으로 시작한다. 서술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인구감소의 위협”(diminution’s menace)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proliferant continuance)를 민족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U 14.16, 19). 특히 조이스가 이 에피소드에서 제국의 담론에 저항하여 “다산”을 번영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안과 함께 살고 있는 다비를 부러워하는가? 자식이라곤 버릇없는 어치와 짐막 눈병에 걸린 잡종 개뿐이야. 정말 바보 같으니라고! 그는 기력이나 스테미나가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새, 죽은 연체동물이야. 번식 없는 생식! (U 14.1419-22)

50여 년 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자식이 없는 다비와 조안 부부는 다산의 퓨어포이 부부와 대조된다. 또한 이 발라드가 실제의 영국인 부부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Cryer 71), 다비부부는 영국을, 퓨어포이는 아일랜드를 넘지시 가리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맥서스가 인구 증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욕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Stein 206), “번식없는 생식”을 실천하고 있는 이성적인 쪽은 영국이고 통제되지 않는 쪽은 아일랜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산의 퓨어포이 부인은 이성적이지 않은 “불합리의 여신”(goddess of unreason U 15.4692)이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조이스는 카알라일의 목소리를 빌어 그가 지지하는 제국을 “바보”와 “노새”와 “죽은 연체동물” 등으로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제국에 대한 모방과 조롱은 머콜리에 대한 패러디에서도 분명하게 보인다. 그의 에세이 “Warren Hastings”에서 발췌한 부분은 재판이 열렸던 곳과 그 재판에

참여한 인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조이스가 아마 세인츠베리나 트레블(Treble)이 편집한 앤솔로지에서 인용한 듯 하다.

위대한, 자유로운, 문명화된, 번영하고 있는 제국의 방방곳곳에서 우아함과 여성적 사랑스러움, 위트와 지식, 모든 학문과 모든 예술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다. . . . 위대한 왕들의 사신들과 식민지들에서 온 사신들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도 보여줄 수 없는 장면을 감탄하며 응시하고 있었다. (Treble 368)

대영제국은 “위대하고”, “문명화되었으며”,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한다. 이 부분은 곧 제국에 대한 찬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슨도 지적하듯이, 이 부분은 대영제국의 중심인물들에 대한 찬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77). 조이스는 머콜리의 문체와 내용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동일성을 보이면서도 타자성을 드러낸다.

장소도 인사들도 위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토론자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명민했고 그들이 다룬 주제는 가장 고상했고 가장 중대한 것이었다. 혼 저택의 높은 홀은 것처럼 대표적이고 것처럼 다양한 인사들의 모임을 본적이 없었고 그 집의 오래된 서까래는 것처럼 박학다식한 언어에 귀기울여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장관(壯觀)이었다. 크로터스는 테이블 다리 옆에 앉아 있었다. . . . (U 14.1199-1204)

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찬양의 대상에 있다. 머콜리의 경우, 제국이 찬사와 찬양의 중심이다. 사실상 거기에 모인 인사들도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우수함과 훌륭함은 제국의 위대함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나 조이스가 모방한 글에서는 이 제국이 제거된다. 또한 머콜리와 마찬가지로 모여든 인사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린치(Lynch)의 “얼굴은 이른 나이의 타락과 조숙한 지혜의 표적”을 이미 보이고 있다(U 14.206-7). 뿐만 아니라 “괴짜”(U 14.1208) 의대생 코스텔로(Costello), 배논(Bannon) 등 모두가 영국 상류층의 제국주의자들과는 거리가 먼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이다. 조이스는 원문에서 보이는 위엄 있는 인사들의 근엄한 재판 장면 대신에 단점과 실수투성이인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토론장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의 위엄을 비웃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혹은 제국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듯

이 보인다.

바바가 암시하듯이, 식민주의적 담론은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 . .] 교정된, 승인할 수 있는 타자”를 증식시키고 싶어 한다(86). 흉내내기를 통해서 새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동일성도 차이성도 부여받지 못하는 양의성(兩義性, ambivalence)의 영역에서 존재하게 된다. 식민지인은 모방 혹은 패러디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방의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혼종(hybrid)이 된다. 식민지에 문화적 동질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된 앤솔로지는 식민주의 담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조이스가 패러디해서 보여주는 앤솔로지는 동질성 대신 혼종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산문의 위대한 전통을 허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문호의 문체에 식민지 아일랜드의 내용을 혼합함으로써 문화의 혈통적 순수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태양신의 황소』의 마지막 열 개 정도의 단락일 것이다. 그 동안 이어지던 영국의 대표적인 문필가들의 위대한 문체의 흐름이 갑자기 미국인 부흥사의 언어를 포함한 “방언과 속어의 파편들로 붕괴된다”(Gifford 441). 조이스 자신은 이 언어를 “피진 영어, 흑인 영어, 런던 사투리, 아일랜드어, 뉴욕(마우어리 지역) 속어, 영터리 시로 이루어진 소름끼치는 뒤범벅”이라고 쓴 바 있다(Letters I 138-39). 여기서 “뒤범벅”(jumble)이라는 단어에는 “혼란(상태)”나 “동요”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식민주의 담론은 앤솔로지를 통해 모두가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했지만 그와 반대로 혼합된 언어들이 위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흉내내기가 내포하고 있는 위협적인 요소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억압되어 온 주변(periphery)이 권력의 중심(center) 안에 비밀리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Gaipa 205). 통합된 영국 문학 전통과 표준화된 영어는 영국인의 민족주의적 자긍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동안 억눌려온 소외된 주변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카알라일 문체 부분에서 그들의 목적지가 덴질 거리(Denzille Street)에 있는 버크(Burke’s) 술집이라는 데에서도 암시되어 있다(U 14.1399). 덴질거리가 이제 페니언 거리(Fenian Street)로 불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과격한 민족주의 단체인 페니언단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리였다. 그들이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영국총독부(Dublin Castle)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버크(Thomas Henry Burke)를 암살 대상으로 지목하고 결국 피닉스 공원(Phoenix Park)에서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Gifford 94), 그들이 같은 이름의 주점으로 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소란스러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덴질 거리의 아이들”(Denzille lane boys)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버크를 암살한 당사자들인 페니언단의 분파인 무적대(Invincibles)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은 주변화된 식민지인들의 잠재적인 위협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이스는 영국 문학사의 “위대한” 작가들을 모방하는 듯하면서도 은근히 “되받아 쓰기”를 통해 제국에 저항한다. 조이스는 또한 영국의 작가들을 흉내 내면서 교묘하게 아일랜드 적인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위대한” 문체를 왜곡시킨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적진에 들어가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김슨은 더글러스 하이드(Douglas Hyde)의 유명한 표현을 빌어 조이스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사실상 “영국적인 것의 아일랜드화”(Irishisation of things English)를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179). “흉내내는 사람” 조이스는 제국주의자의 문화를 불완전하게 모방함으로써 식민주의 담론의 권위를 문제시 한다. 이러한 모방은 제국과 식민지인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제국의 정체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다. 제국은 위대한 문체의 모방을 통해 품위 있는 상류사회의 문화를 이어받은 순종적인 식민지인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저항적이고 위협적인 주변부 문화의 분출을 막을 수 없다. 오늘 태어난 영국계 아일랜드인 퓨어포이의 아이도 앤솔로지의 교육을 통해 위대한 문체를 교육받겠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일랜드적인 요소가 그를 영국인과 완전히 같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남대)

인용문헌

- 이인기. 「문체실험과 역사쓰기: 「태양신의 황소들」장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16.1 (2010): 141-58.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eds.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Second Ed. New York: Routledge, 2007.
- Bazargan, Saaan. "Oxen of the Sun: Maternity, Language, and History." *JJQ* 22.3 (1985): 271-80.
- Benstock, Bernard. "Decoding in the Dark in 'Oxen of the Sun'." *JJQ* 28.3 (1991): 637-42.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Crawford, Robert. *Devolving English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92.
- Cryer, Max. *Who Said That First: The Curious Origins of Common Words and Phrases*. Auckland: Exisle Publishing Limited, 2010.
- Gaipa, Mark. "Culture, Anarchy, and the Politics of Modernist Style in Joyce's 'Oxen of the Sun'." *Modern Fiction Studies* 41.2 (1995): 195-217.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Oxford: Oxford UP, 2005.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Rev. 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Hall, Catherine. "The Economy of Intellectual Prestige: Thomas Carlyle, John Stuart Mill, and the Case of Governor Eyre." *Cultural Critique* 12 (1989): 167-96.
- Harris, Susan Cannon. "Invasive Procedures: Imperial Medicine and Population Control in *Ulysses* and *The Satanic Verses*." *JJQ* 35.2/3 (1998): 373-99.
- Herring, Philip F., ed. *Joyce's Ulysses Notesheets in the British Museum*. Charlottesville: U of Virginia P, 1972.
- Janusko, Robert. *The Sources and Structures of James Joyce's "Oxen"*. Ann Arbor: UMI Research, 1983.
- Joyce, James.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and Claus

- Melchio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Occasional, Critical, and Political Writing*. Ed. Kevin Barry. Trans. Conor Deane. Oxford: Oxford UP, 2000.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57.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Press, 1966.
- Lowe-Evans, Mary. *Crimes against Fecundity: Joyce and Population Control*. Syracuse: Syracuse UP, 1989.
- Murison, A. F., ed. *Selections from the Best English Authors: Beowulf to the Present Time*. London: W. R. Chambers, 1907.
- O'Connor, Ulick, ed. *The Joyce We Knew: Memories by Eugene Sheehy, Will G. Fallon, Padraic Colum, Arthur Power*. Cork: Mercier, 1967.
- Osteen, Mark. *The Economy of Ulysses: Making Both Ends Meet*. Syracuse: Syracuse UP, 1995.
- Peacock, William, ed. *English Prose from Mandeville to Ruskin*. London: Grant Richards, 1903.
- Quantrill, Esther Maeve. *Anthological Politics: Poetry and British Culture 1860-1914*. PhD Dissertation. U of Texas at Austin, 1995.
- Saintsbury, George. *A History of English Prose Rhythm*. London: Macmillan & Co., 1912.
- Schapiro, J. Salwyn. "Thomas Carlyle, Prophet of Fascism."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17.2 (1945): 97-115.
- Spoo, Robert.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History: Dedalus's Nightmare*. Oxford: Oxford UP, 1994.
- Stein, Herbert. *On the Other Hand: Essays on Economics, Economists, and Politics*. Washington: The AEI Press, 1995.
- Thompson, William J. "The Development of Irish Census, and its National Importance." *Journal of The Statistical and Social Inquiry Society of Ireland* 12 (1911): 474-78.
- Treble, H. A., ed. *English Prose: Narratives, Descriptive, and Dramatic*. London:

Oxford UP, 1917.

Wells-Lassagne, Shannon. "‘He Believed in Empire’: Colonial Concerns in Elizabeth Bowen’s *The Last September*." *Irish Studies Review* 15.4 (2007): 451-63.

Abstract**Undermining the Great Tradition of Empire
in “Oxen of the Sun”**

Taeun Min

“Oxen of the Sun” is known for Joyce’s imitation of the styles of the great authors from Old English to Carlyle. Scholars have long been aware of his sources. The selections turn out to be nationalistic, militaristic, and imperialistic. This paper examines how Joyce undermines the great tradition of empire by parodying the originals. The paper will be focused on the comparison and contrast between Joyce’s parody and the original essays by the influential Victorian sages, particularly Carlyle and Macaulay.

Carlyle as a strong upholder of imperialism believed that the English were a superior race and thus should govern the colonies. He had contempt for the common man, while he admired heroes like a sort of god. Also, for him men must be masters in their own house. In his parody, Joyce attempts to deconstruct the colonial and patriarchal discourse of the Empire through Carlyle. Also, Joyce resists Malthusian theory, which warned against the population growth, a theory favored by the English ruling class. Opposed to the idea that a civilized man can control himself but a barbarian multiplies heedlessly, Joyce celebrates the fertility of Ireland. Similarly, Joyce simply erases the Empire as it is glorified by Macaulay. Furthermore, at the end of the episode, the anthology of literary prose styles gives way to the oral cultures at the periphery which English culture has repressed. This hints at the subversiveness or menace of Joyce the Irishman,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Englishman.

Joyce enacts resemblance or parody and, in the process, becomes a “hybrid,” that which is potentially disruptive. For Bhabha, mimicry and resemblance are

modes of resistance. By imperfectly mimicking the colonizer's culture, Joyce the "mimic man" implicitly questions the authority of colonial discourse.

■ Key words : Joyce, *Ulysses*, *Oxen of the Sun*, Homi Bhabha, mimicry, Carlyle
(조이스, 『율리시스』, 태양신의 황소, 호미 바바, 모방, 카알라일)

논문접수: 2013년 5월 21일

논문심사: 2013년 6월 8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8일